

5월 2일 토요일 법회 식순

< 1부 > 기도법회 (법요집 참조)

< 2부 > 불교대강좌

- 주 제 : 생활 속의 수행
- 법 사 : 종호스님(불교대학 교수)

♪오늘의 찬불가 '보현행원' 법요집 p.53

이달의 초청강좌

날 짜	법 회 주 제	법 사
5. 9(토)	부처님 오신 참 뜻 1	법타스님 (정각원장)
5.16(토)	부처님 오신 참 뜻 2	마가스님 (교법사)
5.23(토)	봉축수계법회	법타스님 (정각원장)

◎ 정각원 불교대학 5기 모집 (접수중)

- 접 수 : 수시 등록가능
- 대 상 : 불교입문과정 수료자
- 수 강 료 : 9만원(분기별)
- 이수과정 : 불교대강좌 → 교리반 I,II

◎ 정각원 「불교아카데미」 모집

○매주(토) 법회후 13:30~

구 분	강좌내용	법 사	강의실
입문반	불교입문	고금스님	법학관 B158
교리반	I 초기불교 불교신행	정천스님	명진관 A103
	II 대승불교 불교문화	명선스님	
漢詩반	한시(漢詩)강좌	동봉거사님	다정산방

봉축수계법회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삼귀의와 오계를 수지하시고 참보좌로 거듭나 보아요!

전계사 정각원장 법타스님
5월 23일(토) 10시, 정각원 법당

*23일 토요일 법회는 수계의식으로 봉행됩니다.

신도님과 가족, 도반 모두가 함께하는 수계법회!

이수경 관장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



◎ 정각원 산하 중립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이수경 부장이 승진 임명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널리 퍼는 복지관으로 우뚝서길 성원합니다.

소득공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불자님은
딱 한번만! 보시봉투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첨단포교실 수납장 보시 받습니다♥

보시현황 : 김낙규, 송옥인, 무기명 불자님(계속)

신도님들의 신행공간 정각원 첨단 포교실에 수납장 보시를 받습니다. 보시자 성함을 새겨드릴 예정이니, 신도님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정각원 신도 상조회 가입안내

상호부조와 친목도모를 위한
‘정각원 신도 상조회’가 출범합니다.

- 신청 : 5월 2일(토)~
- 대상 : 정각원 신도(신도등록)
- 회비 : 1만원(매월)

☎ 신도회 수석부회장 혜명 010-3168-1195

보시동참

4월 27일 불전 공양

₩1,377,000원

법타스님, 강은희, 고목훈, 곽원기, 권복숙, 권혁채, 김옥분, 김원욱, 김종관, 남창강, 박성진, 백광호, 변형하, 안대준, 안종광, 원서준, 윤병남, 윤호문, 이관호, 이기연, 이봉자, 이성부, 이영선, 임해숙, 임해숙, 제인태, 조경자, 최선자, 최유담
(그 외 무기명 보시 불자님)

<법회경비 집행내용 : 교비 지출>

₩1,308,000원

(법사비, 토요일 법회 촬영과 편집비, 법보지 인쇄비 등)

인등 보시

김미경, 성광호, 성주연, 신윤희, 이명제, 정성호, 조승혜, 조아담, 조정혜, 최태영

공양 보시

- ❖ 대 중 공 양 : 무심화 이순자
- ❖ 불단 떡/과일 : 정각원 신도회

§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 가지 공양항 초 차 과일 꽃 쌀은 큰 복전을 짓는 것입니다. 동참 바랍니다^^

네팔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네팔 대지진, 80년 만의 최악의 참사.
지난 4월 25일 발생한 네팔 대지진의 긴급구호 및 주민지원 모금을 진행합니다. 법당 안에 모금함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신도님들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정각원 토요일법보

信心 장한 엘리트 불자 됨이 불교의 희망입니다.

불기 2559(2015)년 5월 2일

제290호(週刊)



선행을 서두르라. 악행은 억제하라.
선행을 더디게 하면 악행에 즐거워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법구경]

❀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날 연등 점등식 ❀



◎ 30일(목)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식 봉행. 이사장스님과 원장스님을 비롯한 동국가족 300여명이 동참하여,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팔정도 부처님, 불 밝힌 교정을 탐돌이 하였습니다. Photo by.이채근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연등권선

연등을 다는 마음 행복한 마음 연등을 다는 마음 진리와 함께하는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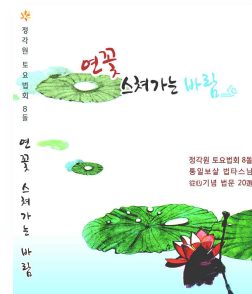


- 동국109발전등 : 109만원 이상
- 동국인재등 : 50만원 이상
- 소원성취등 : 30만원 이상
- 가족행복등 : 10만원 이상
- 영가등 : 10만원 이상

신도님들께 연등 권선부를 나눠드리니 연등 모연에 동참해주세요.

☎ 정각원 행정지원실 2260-3017, 신도회 총무 일현 010-9142-4282

원장스님 從心기념 법문 20選 DVD 출간!



정각원 토요일법회 8돌!
원장스님 從心기념!

법문 동영상 20選 DVD!
(총4장 1set)

특별가 : 1만원
(정가 : 1만5천원)

신도님들께 부처님 가르침이 오롯이 담겨있는 한정판 원장스님 법문 동영상 DVD를 직접 소장하실 수 있는 특권을 드립니다.

《본래불 체화하기》

-直入의 수행-

종호스님(불교대학 교수)

“一切衆生悉有佛性”의 『열반경』을 비롯해 모든 경전과 조사의 어록들은 眞性이나 自性, 마음(心) 등 존재의 근원적 요소를 말하고, 이는 본래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없는 것, 그릇됨도 혼란함도 없는 존재, 그러면서도 태양처럼 밝고 환한 존재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그 태양이 번뇌 망념이라는 구름에 덮여 있으므로 구름을 제거하는 작업, 곧 수행이 필요하다고 설한다.

이를 체화하는 수행에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대체로 두 가지 형태를 활용했다. 직입과 점차이다. 중국 선종의 초조菩提達摩의 가르침을 예로 들자면, 凝住壁觀과 四行의 방식이다. 벽관은 捨妄歸眞이라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곧바로 眞性에 직입하는 방법이요, 사행은 점차로 그 진성에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이다. 남방선이 주로 후자의 형식을 띠고 있다면 북방의 중국선은 대체로 전자의 입장에 있다.

벽관의 행법을 계승한 四祖道信은 守一不移를, 五祖弘忍은 守心이나 守眞心을 설했으며, 六祖慧能은 一念若悟 卽衆生是佛이라 하며 일념의 깨달음을 가르쳤다. 이들은 태양과 같은 상태, 본래 깨달아 있다는 본래불에의 직입의 방법이다. 일상 속에서 이의 顯現을 극단으로 강조한 馬祖의 가르침이나, 후대 목조선은 이를 삶과 수행법상에서 잘 정리해낸 것들이다.

즉, 사조도신이 강조한 守一不移나 홍인의 守心 방법은 분별심, 망념의 생각이 없이 밝고 환한 본래지를 인지하고 거기에 마음을 安住, 집중하는 방법이며, 이를 일상의 삶과 일치시키거나 좌선을 통해 本證自覺을 구현하고자 했다.

直入은 實相인 眞性에의 일치요, 無漏智性인 반야가 발현됨이다. 무한 공덕의 갖춤과 반야의 발현, 이러한 福慧의 무량함이 實相界이며, 이는 이른바 ‘최고의 행복’ 상태이다. 본래부터 완벽히 갖추어진 최고의 행복 상태에 곧바로 들어감이 직입인 것이다. 내 안에 갖추어진 밝고 환한 태양, 本證인 본래불에의 일치이다. 그래서 직입은 행복에의 직입이다.

일반적 행복론에는 매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행복 요소로 참으로 많은 것들이 언급되기도 한다. 가치관이나 삶의 기준 등 정신적 부분에서부터 금전이나 일, 사랑, 친구, 가족, 건강, 운동, 웃음 등 실제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다. 상대적, 비교적 가치관보다 정신적이고 이타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안락과 평온을 중히 여기는 삶의 기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적절한 운동, 넘치는 미소 등이 이야기되기도 한다.

직입을 통한 행복의 구현은 이러한 일반적 행복과는 개념을 달리 한다. 解脫이나 見性이라는 불교의 究竟地는 상대적 현상경계에 입각해 있는 일반적 행복론과는 구분된다. 하지만 '과정', 즉 점진적 방법론에서는 고려할 점이 있다. 다루어야 할 대상이 현상의 것이고, 이루어진 것을 통해 점차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직입이나 점차적 방법 모두 본래불(本來佛)의 자각과 그 구현이 목표이지만, 과정상에서 혹은 다루는 수행법의 내용이 문제의 해법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이는 수행을 전제로 한다.

직입은 곧바로 최상 행복에의 직입이므로 「직입하기」로, 직입을 위한 세부적 방법은 「직입으로 가기」로 말할 수 있다. 본래불 사상을 바탕으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그 본래불을 자각하고 그대로 살아감이 「직입하기」이며, 하나씩의 구체적 실천을 통해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함이 「직입으로 가기」이다.

「직입하기」는 자신이 본래 근심 걱정 없는 완전히 행복한 존재(본래불)임의 자각이다. 내 안에 무한 공덕과 無漏智, 즉 福慧가 본래 충만되어 있음을, 모자람 없이 넘쳐나고 있음에 일념 집중하는 방법이다. 오로지 여기에만 집중한다.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은 배제해야 한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거나, 내 현실이 그런 상황 아니다, 혹은 내게 그런 무한 복혜가 구족되어 있겠는가 등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은 방해 요소이다. 소위 모든 게 번뇌 망념이고 이런 생각이 없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오로지 최고의 행복한 존재라는 것, '본래불'에만 집중한다.

긍정심리학에서는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단점을 찾아 그것을 고치고 개선하려고 하지 말고 강점이 되는 요소를 발견하고 끌어내어 발전시키라고 말한다. 부정적이고 나약한 요소를 개선하려는 것보다는 곧바로 힘이 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켜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과거의 언짢은 경험, 비관적인 전망, 부정적인 생각 등은 관심에 두지 말라고 한다. 다름도 있지만 연관이 있다.

「직입으로 가기」의 방법은 무수하다. 달마가 설한 報怨, 隨緣, 無所求, 稱法行의 四行은 그 한 예가 된다. 보원행은 인과응보의 설이며, 수연행은 연기법에 대한 내용, 무소구는 제법개공, 칭법행은 6바라밀처럼 법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차제적인 것이자 차원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도 있다.

이들 인과응보나 연기 및 공관과 칭법의 사행은 많은 현대적 방법들과 상관한다. 즉 인과응보설은 타인이나 존재에 대한 이해와 용서를, 보원행과 함께 연기법을 설한 수연행은 수용하고 수순하는 자세를, 무소구와 칭법행은 존재의 이해와 삶이라는 자애의 태도 즉 존재에 대한 감사와 그 실천의 방법들을 살펴볼 수 있다. 생활 속에서의 이해하기나 용서하기, 수용하기, 감사하기, 자애심 베풀기 등이다.